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7,020.3	16.2	101,500	22	-16.1	-21.6	5.8	70.7	33.9	0.5	0.5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553.7	21.6	341,000	24	-11.8	-18.2	-10.5	4.6	3.8	0.6	0.5	14.1	14.7
현대알렉트릭	627.7	4.6	61,500	-1.8	-32.0	-21.5	-46.1	5.8	5.1	0.5	0.5	9.3	9.7
현대건설기계	1,229.6	8.9	124,500	-4.6	-23.6	-25.9	-26.3	7.9	5.8	0.9	0.8	11.7	13.9
삼성중공업	4,372.2	16.8	6,940	-0.3	-8.3	-10.6	7.3	43.8	21.7	0.4	0.4	1.0	1.9
대우조선해양	2,664.1	4.1	24,850	-1.8	-8.8	-9.5	78.8	7.5	10.8	0.8	0.7	10.9	6.8
현대미포조선	1,746.0	9.1	87,300	23	-5.7	-10.6	10.9	18.8	13.6	0.7	0.6	3.6	4.8
한진중공업	310.7	6.3	2,930	12	-11.5	-7.0	-11.5	58.9	14.7	0.4	0.4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164.5	21.8	79,700	-4.9	-35.7	-0.1	46.5	14.1	13.7	1.9	1.7	14.6	13.3
두산밥캣	3,092.7	25.6	30,850	-25	-10.8	0.7	-13.8	11.3	10.7	0.9	0.8	7.4	7.6
현대로템	2,120.8	7.5	24,950	-35	-35.8	46.8	33.1	32.2	21.9	14	13	4.5	6.3
하이록코리아	351.2	48.1	25,800	24	-11.6	7.5	14.7	11.7	10.7	1.0	0.9	8.8	9.0
성광밴드	326.0	16.9	11,400	22	-10.2	-2.6	14.2	1,007.7	40.9	0.7	0.7	0.1	1.8
태광	303.4	13.0	11,450	46	-13.3	-42	-5.0	68.4	33.4	0.7	0.7	1.0	2.1
두산중공업	1,675.2	13.7	14,300	-21	-24.9	-5.6	-6.8	17.5	9.2	0.5	0.5	32	56
두산인프라코어	1,873.4	16.9	9,000	-23	-15.5	7.3	3.6	6.2	5.7	1.0	0.8	166	156
두산엔진	135.1	4.1	4,100	0.0	-17.8	3.7	59.6	-8.1	-10.8	0.3	0.3	-25	-29
한국항공우주산업	3,962.4	13.5	40,650	-1.3	-8.4	-16.2	-14.3	30.4	23.1	3.3	29	10.7	13.2
한화테크윈	1,124.1	11.8	21,600	-4.4	-31.4	-21.7	-39.2	26.5	14.8	0.5	0.5	1.9	3.3
LIG넥스원	814.0	8.9	37,000	-0.5	-25.3	-21.5	-38.1	16.9	11.3	1.3	12	8.2	11.1
태웅	295.1	4.5	14,750	-0.7	-19.4	-18.7	-23.8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이텍	159.5	3.6	5,910	-20	-9.1	-22.4	17.0	-43.5	62.2	1.9	18	-4.3	3.1
한국기본	255.4	12.2	5,810	-33	-7.8	1.8	8.4	31.7	165	0.8	0.8	2.5	4.7

주: 카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Marinakis in 10-vessel LNG newbuild deal with Hyundai

그리스 선주 Marinakis는 현대중공업과 약 20억달러에 가까운 신조 LNG선 최대 10척의 LOI를 체결했다고 알려짐. 확정 계약은 17~18만CBM급 LNG선 4척으로, 인도는 2020~21년 사이임. 또한 2번에 걸쳐 3척씩 발주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했고, 선가는 적당 1.84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짐. (TradeWinds)

Orders for nine MRs at STX hang in the balance

STX조선해양은 3억달러 이상 규모의 MR탱커 9척에 대한 RG(선수급환급보증) 발급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짐. 이는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에서 RG 발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계약선가는 지난달 시장가격으로 체결되었고, 현재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알려짐. (TradeWinds)

Pacific Carriers tied to new tankers contract

싱가폴 Pacific Carrier는 PC선 선대화장장을 위해 STX조선해양에 5만DWT급 MR탱커 3척을 발주했다고 알려짐. 선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인도는 2020년 초로 예정됨. 그러나 STX조선해양은 KDB산업은행에서 RG를 발급받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알려짐. (TradeWinds)

한국 조선, 상반기 127억달러 규모 상선 수주 달성

국내 조선 3사는 올해 상반기 117억달러 이상, 증견 조선사는 11억달러를 수주했다고 알려짐. 상반기 기준 현대중공업 그룹은 총 60억달러 수주 및 수주목표의 45% 달성, 대우조선해양은 32억달러 수주 및 수주목표의 44% 달성, 삼성중공업은 25.4억달러 수주 및 수주목표 30% 달성을 기록했다고 알려짐. (EBN)

Pistoliros takes suezmax tally at Hyundai to four

그리스 Evangelos Pistoliros는 현대중공업에 15.8만DWT급 suezmax 탱커 2척을 발주했다고 알려짐. 이는 작년에 발주한 2척의 익선임. 해당 선박은 2020년 초에 인도될 예정이며, 스크러버 장착이 계획됨. 해당 선사는 중고선 시장에는 고품질 선박의 매물이 적어, 신조선을 선택했다고 밝힘. (TradeWinds)

현대상선, 선대 54척에 스크러버 장착 추진

현대상선은 지난달 말 현대글로벌서비스·현대중공업·디렉·파나시아와 스크러버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알려짐. MOU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보유 선박 54척에 스크러버 장착을 계획, 조선 3사에 발주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에도 장착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짐. (아주경제)

정기선이 이끄는 현대글로벌서비스, 상반기 친환경선박 개조 1.2억弗 수주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상반기 배기ガ스 세정장치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등 친환경 선박 개조분야에서 1.2억달러를 수주했다고 알려짐. 이는 지난해 전체 수주 0.16억달러 대비 7배 이상의 기록을 상반기에 달성함. 정기선 대표는 2022년까지 매출 2조원, 수주 23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밝힘. (한국경제)

해양진흥공사 본격 출범…조선업계 '수주 도약' 기대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5일 본격 출범함에 따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선사의 선박확충 지원이 차질 없이 수행될 전망임. 5개년 계획은 2020년까지 총 200척 이상의 선박 신조 발주를 목표함. 공사의 신조 지원은 선박 건조비용의 30%를 투자하거나 일정액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임. (헤럴드경제)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7월 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7월 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